

#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속도'

남원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시범사업, 본사업으로 본격 확대

통합돌봄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 발굴, 돌봄 수요 조사, 지역자원 연계 등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본사업 체계로 전환했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욕구에 맞춘 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복지·주거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 #특화사업 5종 운영

남원시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2025년도 중점 대상군에 대한 필요도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5대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점 추진하며, 보다 촘촘한 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식사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식 9,000원 단가의 영양 가득한 일반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죽, 당노식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식단을 지원할 계획으로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관리에 기여할 예정이다.

방문재활운동 서비스는 재활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운동지도와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 및 일상생활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통해 낙상 위험이 높은 가정 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손잡이 설치나 문턱 제거 등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해 관내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도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동행 서비스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 지원과 진료 동행, 약 수령 등을 지원하며, 의료 이용 전반에 걸친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다. 남원시는 이들 특화사업을 통해 의료·생활·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을



식사 지원



방문재활운동



방문 상담

차등 적용하거나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 #체계적인 서비스 신청 절차 운영

남원시는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청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통합지원회의

식사지원·방문재활운동·주거환경개선 등 5종 운영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신청 절차 마련 사후관리 실효성 높이기 위한 민간 전문기관과 모니터링



주거환경 개선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돌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와 지원 내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비스가 확정되면 수행기관에 연계되어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제공 이후에도 3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추가 욕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월 단위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추가 욕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민·관 협력 강화... 현장 중심 돌봄체계

## 구축

남원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한 모니터링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최근 남원시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지원계획 수립 이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대상자 발굴과 계획 수립,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노인복지관은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 욕구 변화, 위험 징후 등을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이나 조정까지 연계하는 촘촘한 돌봄관리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자 발굴과 제도 인착에 총력

남원시는 앞으로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돌봄기획팀 안주희 팀장은 "통합돌봄 사업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며,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HEAL FROM WATER**

아이들의 물놀이 천국

# 순창강천힐링스파

온 가족이 천혜 자연의 물을 즐긴다.  
다양한 건강체험, 온천치유 누리실, 스파체험 등  
이제 새로운 순창을 경험해보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강천힐링스파**